



단양팔경(丹陽八景)의 정립과 채진두(蔡鎭斗)의 「단양팔경」에 대한 고찰

이상주 | 전 중원대 한국학과 교수

1. 머리말
2. 단양팔경의 정립 시기와 채진두(蔡鎭斗)의 「단양팔경(丹陽八景)」 창작 시기
3. 채진두의 가계와 생애
4. 채진두의 『의재집(毅齋集)』- 당대 시대상의 시문학적 발현
5. 채진두의 문학관과 팔경(八景), 구곡(九曲)에 대한 인식
6. 채진두의 「단양팔경」에 대한 분석
7. 맺음말

1. 머리말

본고에서는 의재(毅齋) 채진두(蔡鎭斗, 1894~1982)의 「단양팔경(丹陽八景)」 시(詩)를 논하고자 한다. 필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논리를 학문연구에 적용했다. 즉 필자의 고향 괴산군에 존재하는 가치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발굴연구하고 나아가 충북에 산재해있는 가치 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해왔다. 그중 대중들이 문화교양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21세기형 문화관광자원으로 구곡(九曲)을 주목했다. 그리하여 2007년 『충북의 구곡과 구곡시-선인의 길을 따라 한시와 자연속으로-』¹⁾라는 책을 냈다. 이는 도(道) 단위 행정구역의 구곡시를 집성번역한 최초의 단행본이다. 구곡시가(九曲詩歌)는 구곡(九曲) 9개 곡(曲) 전체에 대해 지은 시가이며, 팔경시는 8개 경(景) 전체에 대해 지은 시이다.

1) 이상주, 『충북의 구곡과 구곡시-선인의 길을 따라 한시와 자연속으로-』, 충청북도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忠北學研究所, 2007.

팔경시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안장리(安章利)의 「한국팔경시연구(韓國八景詩研究)」이다.²⁾ 이 논문 80면에서 팔경시 소재목 배열의 원리를 유사성과 대비성으로 설명했다. 팔경에 대해 연구한 논고가 몇 몇 있다.³⁾

충북의 팔경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필자가 「서계구곡(西溪九曲)과 서계팔영(西溪八詠) 시(詩)와⁴⁾ 「보은군(報恩郡)의 봉황대(鳳凰臺)와 이홍유(李弘有)의 봉황대팔영(鳳凰臺八詠)」⁵⁾이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또 「선유팔경(仙遊八景)과 선유구곡(仙遊九曲)에 대한 고찰」⁶⁾과 「괴산(槐山) 청안팔경(淸安八景)과 청안팔경시(淸安八景詩)」⁷⁾라는 논문을 통해 충북지역의 팔경시에 대해 논했다. 2008년 필자가 『충북의 팔경과 팔경시』⁸⁾라는 역주본을 출간했다. 『충북의 팔경과 팔경시』에는 2008년 당시까지 충북 각 시군에서 발행한 시지와 군지에 수록된 팔경시와 필자가 여러 문집에서 새로 찾아낸 팔경시를 수집번역하여 실었다. 이는 도(道) 단위 행정구역의 팔경시를 집성역주(集成譯註)한 최초의 단행본이다.

필자가 2008년 (사)충북향토문화연구소 이름으로 『충북의 팔경과 팔경시』를 출간하여 충청북도내 각 시군 향토사연구회를 비롯하여 주요기관과 도서관에 발송했다. 그 직후 신문사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단양주재 신문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단양군민들이 단양팔경이 있는데 왜 단양팔경시를 실지 않았느냐고 항의한다고 해명을 해달라고 했다. “수록대상을 한 사람이 제1경부터 제8경까지 8개 경(景) 전체에 대해 지은 시에 한정했다. 단양팔경 8개 경은 있는데, 단양팔경 제1경부터 제8경까지 8개 경 전체에 대해 읊은 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실지 않았다. 단양팔경 중에 옥순봉, 도담삼봉 등에 대해 지은 시는 많으나 단양팔경 8개 경 전체에 대해 지은 시가 없어서 수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의를 제기한 단양군민을 바꾸어 준다고 해서 통화했다. “먼저 오해를 하시게 해서 송구하다. 애항심이 투철하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마음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군민은 격앙된 목소리로 그 기자와 똑같은 말을 했다. 그 기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보완해서 설명을 했다. 이후 필자는 단양팔경 8개 경을 모두 읊은 시를 찾아내야한다고 맘먹고 많은 문집을 볼 때

2) 安章利, 「韓國八景詩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6, 1-239쪽.

3) 노재현, 「丹陽八景의 活人性과 景勝形象化 展開樣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7, 75-93쪽. 안장리, 「東國輿地勝覽」 '新增' 所載 八景詩의 특성, 『한국한문학회연구』 20, 한국한문학회, 1997, 109-135쪽; 안장리,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 「侏仰亭三十詠」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5, 열상고전학회, 2007, 5-31쪽; 안장리, 「瀟湘八景 수용과 한국팔경시의 유행 양상」, 『한국문화과예술』 13,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4, 45-75쪽; 이국진, 「동아시아 소상팔경 문화: 조선 전기 瀟湘八景詩의 형상화 방식」, 『온지논총』 34, 온지학회, 2013, 7-32쪽; 최은주, 「朝鮮前期 八景詩의 창작 경향」, 『대동한문학』 15, 대동한문학회, 2001, 299-331쪽. 안장리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7년 10월 2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통 구곡과 팔경의 문화재적 가치」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구곡과 팔경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4) 이상주, 「西溪九曲과 西溪八詠詩」, 『教育科學研究』 제16집 제1호,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2, 149-177쪽.

5) 이상주, 「報恩郡의 鳳凰臺와 李弘有의 鳳凰臺八詠」, 『忠北郷土文化』 제13집, 忠北郷土文化研究所, 2002, 137-149쪽.

6) 이상주, 「仙遊八景과 仙遊九曲에 대한 고찰」, 『漢文學報』 제7집, 우리한문학회, 2002, 201-238쪽.

7) 이상주, 「槐山 淸安八景과 淸安八景詩」, 『槐郷文化』 제6집, 괴산향토사연구회, 1998, 10, 2. (單獨) 159-165쪽.

8) 李相周, 『충북의 팔경과 팔경시』, 충북향토문화연구소, 동일, 2007.

마다 유심히 관찰했다.

단양팔경은 관동팔경과 쌍벽적(雙璧的) 명승지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단양팔경이란 말은 단양의 산수의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상징어로 써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제 누가 단양팔경을 정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재현의 「단양팔경(丹陽八景)의 활인성(活人性)과 경승형상화(景勝形象化) 전개양상(展開樣相)」이라는 논문에서도 단양팔경의 설정자는 밝히지 않았다.⁹⁾

단양팔경 8개의 명칭과 그 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또한 단양팔경 제 1경부터 8경까지 8개 경에 전체에 대해 지은 시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필자가 괴원(槐園) 이준(李埈, 1812~1853)의 「단양십경차무이도가운(丹陽十景次武夷權歌韻)」¹⁰⁾을 확인하여 「괴원(槐園) 이준(李埈)의 「단양십경차무이도가운」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학계에 소개했다.¹¹⁾

필자가 2011년 채진두(蔡鎭斗, 1894~1982)¹²⁾의 『의재집(毅齋集)』에서 「화양구곡」 시를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연구 자료가 많아 미처 연구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9년 봄 화양구곡시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의재집』을 다시 살펴보았다. 『의재집』은 서문과 목차를 제외하고 실제 문집의 내용 49면 권1부터 350면까지 수록돼있다. 342면인데 1면에 전통문집 4쪽을 수록했으니, 적은 분량이 아니다. 2011년에는 구곡시에 대해 중점으로 보았으며 분량이 적은 편이 아니라 대강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단양팔경」 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 이를 확인하게 되어 호재라 여겨 본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단양팔경 8개 경 전체에 대해 지은 시는 없다.

이번에 단양팔경 8개 경(景) 전체에 대해 지은 채진두의 「단양팔경」을 찾아내게 된 것이다. 채진두의 「단양팔경」은 단양팔경 8개 경에 대해 지은 현존 최초의 시이다. 출생연대로 보아 전통한문학을 공부한 세대이다. 현재까지 채진두 이전에 지은 단양팔경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단양팔경의 정립시기를 개략하고 채진두의 생애와 문학관을 제시하고 그의 「단양팔경」에 대해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2. 단양팔경의 정립(定立) 시기와 채진두의 단양팔경 창작 시기

9) 노재현, 「丹陽八景의 活人性과 景勝形象化 展開樣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7, 75-93쪽.

10) 李埈, 「丹陽十景次武夷權歌韻」, 『槐園集』 1, 20-22쪽. 국립중앙도서관.

11) 李相周, 「槐園 李埈의 「丹陽十景次武夷權歌韻」에 대한 고찰」, 『고전과 해석』 제 25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285-325쪽.

12) 채진두의 생몰연대는 채진두가 지은 「華陽九曲」을 번역할 때 그 생몰연대를 기술해놓으려고 2011년 7월 14일 목요일 인천채씨 대종회에 전화를 걸었는데 蔡晚熙(1938~)님께서 알려주셨다. 蔡鎭斗, 『毅齋集』, 「華陽九曲」, 서울 금강인쇄소, 1991, 65쪽.

1) 단양팔경(丹陽八景)의 정립 시기

단양팔경의 명성에 비해 단양팔경을 정한 사람과 그 연도에 대한 연구는 되어있지 않다. 이황(李滉, 1501~1570) 등 단양군수를 지낸 역대 인물들도 옥순봉, 구담, 도담삼봉 등 개별 명승에 대한 시를 지었으나, 8개 경을 설정하여 8개 경 전체에 대해 지은 시는 그들의 문집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누가 언제 단양팔경 8개 경(景)의 명칭을 정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문헌도 찾지 못했다. 단양팔경이 정립된 시기에 대해서는 편의상 「괴원 이준의 「단양십경 차무이도가운」에 대한 고찰」이라는 필자의 논문에 정리했던 내용을 개략 제시한다.

2019년 12월 현재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초로 단양팔경을 소개한 문헌은 정삼철이 편역한 『1923년 발간 충북산업지(忠北產業誌)』(이하 『충북산업지』)¹³⁾으로 보인다. 이 책은 1923년 천야행무(天野行武)이 충청북도의 환경과 상황을 일본어(日本語)로 정리하여 발행한 『충북산업지(忠北產業誌)』를 한글로 편역한 것이다. 좀 길지만 단양팔경의 설정 연대와 그 선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충북산업지』의 “단양팔경(丹陽八景)”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한강의 상류는 가장 기이한 풍경이 많다. 단양팔경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일찍이 세상에 알려졌다. 최근에는 재등(齋藤) 조선총독이 와서 그 경치를 실컷 구경하였다.

단양군 내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상선암(上仙庵), 중선암(中仙庵), 하선암(下仙庵)은 단양면 가인리(佳人里)에 있고, 구담(龜潭)은 단양면 장우리(長禹里)에 있다. 옥순봉(玉筍峰)은 구담과 접해 있는 기이한 봉우리다. 운선구곡(雲仙九曲)은 상강면(上崗面) 괴평리(槐坪里)에 있으며, 대은담(大隱潭), 대흥계(大興溪), 영운정(永雲亭), 연단굴(煉丹窟), 도광벽(道光壁), 사선대(四仙臺), 사인암(舍人岩), 선화동(仙花洞)을 구곡이라 이른다.(필자주: 오대익이 정한 구곡과 9개 곡의 명칭이 다르다.¹⁴⁾)

도담삼봉(島潭三峯)은 매포면(梅浦面) 도담(島潭)에 있고, 석문(石門)은 도담삼봉의 상류 약 150칸의 산 위에 있다. 이것은 여러 경치의 하나로서 기이하고 색다르며 진기하고 절묘하다. 봄빛 화창한 계절 혹은 추홍금(秋紅錦)을 수놓은 날, 작은 배를 타고 강을 노닐다 보면 저절로 우화등선(羽化登仙)을 생각하게 한다. 현임 단양군수 곽한탁(郭漢倬)의 선친 난사(蘭

13) 정삼철·최병철·조범희·최유림 편역, 『1923년 발간 충북산업지(忠北產業誌)』, 충북학연구소, 2019.

14) 오대익(吳大益 1729~1803)이 정한 운선구곡(雲仙九曲)은 다음과 같다. 제1곡 대은담(大隱潭), 제2곡 황정동(黃庭洞), 제3곡 수운정(水雲亭), 제4곡 연단굴(煉丹窟), 제5곡 도광벽(道光壁), 제6곡 사선대(四仙臺), 제7곡 사인암(舍人岩), 제8곡 도화담(桃花潭), 제9곡 운선동(雲仙洞). 정범조(鄭範祖, 1723~1801)와 경종로(鄭宗魯, 1738~1816) 등이 화운가를 지었다.

신익균(申益均, 1879~1939)은 구곡의 명칭과 운(韻)을 달리해서 운선구곡가를 지었다. 신익균의 운선구곡은 다음과 같다. 제1곡 대은담(大隱潭), 제2곡 황정동(黃庭洞), 제3곡 선도담(仙桃潭), 제4곡 운정(雲亭), 제5곡 도광벽(道光壁), 제6곡 사선대(四仙臺), 제7곡 서벽정(棲碧亭), 제8곡 사인암(舍人岩), 제9곡 운선(雲仙). (신익균, 『과암집(果庵集)』, 대전 회상사, 1966. 「입운선구곡, 방무이도가, 영심절이기회(入雲仙九曲, 傲武夷棹歌, 咏十絶以記懷)」

史) 곽창현(郭昌鉉)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¹⁵⁾

위와 같이 기술하고 9개의 명소를 열거하며 그에 대해 7언 절구를 지었다. 즉 도담삼봉(鳥潭三峯), 석문(石門), 사인암(舍人岩), 운선구곡(雲仙九曲), 상선암(上仙岩), 하선암(下仙岩), 옥순봉(玉筍峰), 북벽(北壁), 남굴(南窟)이다. 남굴(南窟)이 끝나고 그 다음에 “북벽(北壁)과 남굴(南窟)은 팔경 이외이지만 모두 영춘면 강안에 있는 경치가 뛰어나게 좋은 곳이다.”¹⁶⁾라고 기술하고 있다.

1923년 간행한 『충북산업지(忠北產業誌)』에도 단양팔경을 정한 사람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누가 언제 단양팔경을 정했는지 밝힐 근거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았듯이 운선구곡에 대해 “운선구곡(雲仙九曲)은 상강면(上崗面) 괴평리(槐坪里)에 있으며, 대은담(大隱潭), 대흥계(大興溪), 영운정(永雲亭), 연단굴(煉丹窟), 도광벽(道光壁), 사선대(四仙臺), 사인암(舍人岩), 선화동(仙花洞)을 구곡이라 이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난사(蘭史) 곽창현(郭昌鉉)이 단양팔경에 운선구곡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팔경의 개념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오대익이 운선구곡을 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9개 곡(曲)의 명칭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 듯하다. 단양팔경 운선구곡(雲仙九曲)을 읽어보자.

雲仙九曲抱回流 운선구곡 품고 돌아 흐르니
仙去雲來九曲樓 구곡의 누각은 신선 떠나고 구름만 모였다네.
倘識此間眞九曲 행여 이 사이가 진짜 구곡인 것을 아는가?
武夷九曲已千秋 무이구곡은 이미 오래되었다네.¹⁷⁾

곽창현은 위 시의 내용과 진사시에 합격한 경력¹⁸⁾으로 보아 주자의 무이구곡과 『무이도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북산업지』(원저명 『忠北產業誌』) 이후 단양팔경을 소개한 자료로는 1930년 단양군에서 발간한 『군세일반(郡勢一般)』¹⁹⁾이 있다. 『충북산업지』와 『1930년도 충청북도 단양군 군세일반』에 수록한 단양팔경의 순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5) 정삼철·최병철·조범화·최유림 편역, 위의 책, 172-173쪽.

16) 정삼철·최병철·조범화·최유림 편역, 앞의 책, 176쪽.

17) 정삼철·최병철·조범화·최유림 편역, 『1923년 발간 충북산업지(忠北產業誌)』, 충북학연구소, 2019, 174쪽.

18) 곽창현의 진사시 합격관련 내용이다. [진사] 고종(高宗) 31년(1894)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421위(450/1055). 자(字) 성수(聖壽). 생년 경오(庚午) 1870년(고종 7). 합격연령 25세. 본인 본관 청주(淸州). 거주지 한성(京). 한국학중앙연구원.

19) 이 자료의 표지에 “昭和五年 郡勢一般 忠淸北道丹陽郡”이라 기술하고 있으며, 종로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삼철 편역, 『1930년도 충청북도 단양군 군세일반』, 충북발전연구원, 2015.

□ 『충북산업지』

상선암(上仙岩), 중선암(中仙岩), 하선암(下仙岩), 구담(龜潭), 옥순봉(玉筍峰), 운선구곡(雲仙九曲), 도담삼봉(島潭三峯), 석문(石門),

□ 『1930년도 충청북도 단양군 군세일반』

상선암(上仙岩), 중선암(中仙岩), 하선암(下仙岩), 운선구곡(雲仙九曲), 석문(石門), 도담삼봉(島潭三峯), 구담(龜潭), 옥순봉(玉筍峰).

두 책에 수록한 단양팔경은 순서는 다르지만 8개 경의 명칭은 같다. 두 책 모두 단양팔경에 운선구곡(雲仙九曲)을 포함한 사실도 같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명소고적 단양팔경(丹陽八景)”이라 전제하고 상선암(上仙岩), 중선암(中仙岩), 하선암(下仙岩), 구담(龜潭), 옥순봉(玉筍峰), 운선구곡(雲仙九曲), 도담삼봉(島潭三峯), 석문(石門)을 단양팔경이라 기술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위에 열거한 명칭을 단양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곽상현이 지은 단양팔경을 읊은 시에는 ‘중선암’과 ‘구담’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사인암’이 수록되어 있다. 단양팔경시를 지은 난사(蘭史) 곽창현(郭昌鉉)이나 『1923년 발간 충북산업지(忠北產業誌)』를 편찬한 사람이 여러 가지 정황 여건상으로 팔경과 구곡에 대해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출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출간 연도로 보아 1930년에 출간된 『군세일반』의 편자는 1923년에 출간된 『충북산업지』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곡과 팔경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이 두 책에는 오대익이 이미 정한 운선구곡을 단양팔경에 포함했다. 필자가 1998년부터 팔경과 구곡시를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자가 미처 못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못 본 듯하다. 두 책에도 단양팔경의 설정자와 시기를 기술해놓지 않았다. 김상현은 그의 저서 『단양팔경』에 ‘운선구곡’을 빼고 사인암(舍人岩)을 넣었다. 그는 팔경 및 구곡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선구곡을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상현은 『단양팔경』 「신단양팔경(新丹陽八景)에 대한 고찰(考察)」이라는 항에서 신단양팔경으로 삼선암(三仙岩), 설마동(雪馬洞), 구담봉(龜潭峰), 옥순봉(玉筍峰), 사인암(舍人岩), 칠성암(七星岩), 용담폭(龍潭瀑) 도담삼봉(島潭三峯)으로 결정되어주기를 희구하면서 선배제현의 질책을 감수할까한다고 했다.²⁰⁾ 1977년에 간행된 『단양군지』의 내용을 살펴보자.²¹⁾ 이 책에는 단양팔경에 기술한 김상현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했다. 다음으로 이창식이 『단양팔경 가는 길』²²⁾에도 단양팔경 제2단

20) 단양에 거주하며 단양지역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단양향교 지성룡사무국장이 다음과 같이 전해주었다. 김상현은 단양 설마동을 단양팔경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설마동에 김상현이 바위에 다음과 같이 새겨놓았다 한다. “雲影壁屹丈夫像, 雪馬泉明淑女心”. 지성룡은 김상현이 단양팔경의 존재를 알은 것은 일제 강점기에 발행한 책자를 보고 기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 책이 『郡勢一般』인 것으로 보인다.

21) 단양군청, 『단양군지』, 1977.

22) 이창식, 『단양팔경 가는 길』, 푸른사상사, 2002.

양팔경을 수록했다. 『단양군지』에 수록된 그대로 수용했다. 위에서 살펴본 책에 단양팔경의 설정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김상현의 『단양팔경』에 단양에 대해 지은 시를 상당한 분량 수록했는데, 괴원 이준의 시는 수록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 김상현은 이준의 시를 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2018년 필자가 괴원 이준이 1850년에 지은 「단양십경차무이도가운」²³⁾을 확인하게 됐다. 이준은 율곡을 비조(鼻祖)로 한 우암의 도통을 계승한 화서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장남이다. 이준은 도통연원(道統淵源)을 감안하여 단양십경을 설정한 정황이 짙으며 시에 그 점을 이입했다. 이제껏 팔경계(八景系) 한시(漢詩)를 논함에 있어 도통의식(道統意識)이 반영됐다는 관점에서 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준이 지은 「단양십경차무이도가운」은 단양팔경도 아니고 단양십경(丹陽十景)이다. 또한 이준은 주자의 「무이도가」의 운을 차운하여 10수를 지은 점도 특이하다.

이준의 문집 『괴원집』에 실린 「습유일록(濕遊日錄)」²⁴⁾를 보면 이준이 단양을 간 연도가 경술년(1850년)이다. 「단양십경차무이도가운」은 이때 지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문헌에 기술된 단양십경 및 단양팔경의 경의 명칭 변경과 그 경의 순서 변화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도표로 작성해본다.

다음에 제시하는 도표는 필자가 「괴원 이준의 「단양십경차무이도가운」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작성한 도표이다. 단양팔경의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에 『1923년 발간 충북산업지(忠北産業誌)』에 소개한 단양팔경 명칭과 그 순서를 추가했다. 그리고 채진두의 「단양팔경(丹陽八景)」을 추가했다.

연도	설정자	기록자	명칭과 경의 수	8개 景의 명칭	출전
1850년 명명	이준		단양10경	제1경 水雲亭. 제2경 舍人巖. 제3경 下僂巖. 제4경 中僂巖. 제5경 上僂巖. 제6경 三僂巖. 제7경 二樂樓. 제8경 玉筍峯. 제9경 龜潭. 제10경 易東書院.	『槐園集』
1923년 기록		天野行武	단양팔경	上仙岩. 中仙岩. 下仙岩. 龜潭. 玉筍峰. 雲仙九曲. 島潭三峯. 石門.	『忠北産業誌』
1930년 기록		충북 단양군	단양팔경	上仙岩. 中仙岩. 下仙岩. 雲仙九曲. 石門. 島潭三峰. 龜潭峰. 玉筍峰.	『郡勢一般』
1956년 기록		金相顯	단양팔경	下仙岩. 中仙岩. 上仙岩. 龜潭峰. 玉筍峰. 舍人岩. 島潭三峰. 石門.	『단양팔경』
1956년 기록		金相顯	신단양팔경 제정을 제외함	三仙岩. 雪馬洞. 龜潭峰. 玉筍峰. 舍人岩. 七星岩. 龍潭瀑. 島潭三峰	『단양팔경』

23) 李垓, 「丹陽十景次武夷權歌韻」, 『槐園集』 1, 국립중앙도서관. 20~22쪽.

24) 이준, 「濕遊日錄」, 앞의 책 9책.

연도	설정자	기록자	명칭과 경의 수	8개 景의 명칭	출전
1964년 기록		蔡鎭斗	1956년 金相顯의 『단양팔경』에 수록된 팔경과 같음	島潭三峰. 石門. 舍人岩. 上仙岩. 中仙岩. 下仙岩. 龜潭峰. 玉筍峰. 사진이 여행하기 편리한 景의 순서대로 시를 지은 것으로 보임.	『毅齋集』
1977년 기록		단양군청	단양팔경	제1경 下仙岩. 제2경 中仙岩. 제3경 上仙岩. 제4경 龜潭峰. 제5경 玉筍峰. 제6경 島潭三峰. 제7경 石門. 제8경 舍人岩.	『단양군지』
1977년 기록		단양군청	신단양팔경	第二 丹陽八景. 제 9경 竹嶺瀑布. 제10경 七星岩. 제11경 北壁. 제12경 九峰八門. 제13경 日光窟. 제14경 錦繡山. 제15경 溫達城. 제16경 다리안山: 다리안산 대신 古藪洞窟을 넣기도 한다.	『단양군지』
2002년 기록		이창식	단양팔경	①島潭三峰. ②石門. ③龜潭峰. ④玉筍峰. ⑤舍人岩. ⑥下仙岩. ⑦中仙岩. ⑧上仙岩. 단양팔경 찾아가기	『단양팔경 가는 길』
2002년 기록		이창식	신단양팔경	①북벽. ② 온달산성. ③일광굴. ④구봉팔문. ⑤금수산. ⑥찰성암. ⑦다리안산. ⑧죽령폭포. 신단양팔경 찾아가기	『단양팔경 가는 길』

이렇듯 단양팔경을 설정한 사람은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알려진 기록으로는 단양팔경에 대해 기술한 최초의 문헌은 『1930년에 발간 충북산업지(忠北産業誌)』이다. 이준이 단양십경시를 지은 연도가 1850년이니 단양팔경계시(丹陽八景系詩)로는 가장 앞섰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19년 현재 공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단양팔경 8개 경은 김상현의 『단양팔경』에 수록한 단양팔경을 따르고 있다. 1964년 채진두가 지은 단양팔경도 이를 따르고 있으며, 8개 경 전체에 대해 시를 지었다. 따라서 단양팔경에 대해 지은 팔경시로는 채진두가 1964년에 지은 「단양팔경(丹陽八景)」이 현존 최초 유일이다.

2) 채진두의 「단양팔경(丹陽八景)」 저작 시기

채진두가 「단양팔경」을 저작한 시기를 알아보자. 단양팔경(丹陽八景)에 대해 지은 시의 창작 연도의 선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채진두의 『의재집』에 수록된 시를 지은 연도를 통해 확인해보자. 대개 문집에 시 작품을 수록할 때 지은 연대순으로 수록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작자가 미쳐 시를 지은 연도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채진두의 문집 『의재집』에 첫 번째 수록된 시의 제목은 「만음(謾吟)」이다. 『의재집』 권1에 시를 지은 연도를 처음 기술한 것은 다음과 같다. 지은 연도를 표기해 놓은 시의 제목을 보기로 하자.

49쪽 「從叔 洪禹挽[庚寅 1951년: 서기 연도는 인용자 주. 이하 같음]. 50쪽 「除夕[辛卯 1951년]. 51쪽 「除夜[壬辰 1952년]. 54쪽 「癸巳[1953년]之秋 七月 既望 與諸益, 遊明岩藥水». 55쪽 甲午1954년)元日. 「六一生朝». 56쪽 「甲午夏, 增築二層屋 與諸益小會». 58쪽 「六二生朝, 有感二首». 58쪽 「乙未 八月 十二日 偶失金指環». 58쪽 「乙未秋 警察局長 崔致煥設置敬老堂». 60쪽 「逢新有感». 62쪽 「鷄龍甲寺[丙申1956년 九月 廿日. 與敬老堂員遊甲寺 四絶]. 64쪽 「正朝[丁酉1957년]. 65~66쪽 「華陽九曲». 70쪽 「濟州道旅行 并序 盖夫詩言志 歌永言, 此乃古聖人之遺訓而今我年之六五, 可謂桑榆之年也. 戊戌[1968년 九月 十四日 作 濟州旅行, 與金友殷培同伴矣. …]. 72쪽 「小竹李忠求回婚作[己亥1959년]. 76쪽 「敬次聞慶陽坡亭八景韻». 78쪽 「庚子[1960년]除夜». 78쪽 「辛丑[1961년]元朝». 79쪽 「三一節. 「矗石樓懷古». 79~80쪽 「夫餘八景 扶蘇山暮雨 落花岩宿煙. 水北亭 青嵐, 窺岩津歸帆, 百濟塔夕照, 阜蘭寺晚鐘, 白馬江沈月, 九龍坪落雁

다음은 『의재집(毅齋集)』 권2에 수록된 시를 지은 연도를 기술한 내역이다.

83쪽 「李泰求壽宴. 첫구에 “太歲壬子[1962년]復月天,”로 시작했다. 85쪽 「端陽署長 李惠 在贈黃陽木曲短杖感吟[甲辰 1964년]. 86쪽 「端陽洋灰工場竣工式. 「端陽洋灰工場竣工式. 다음에 「단양팔경」을 수록했다. 88쪽 「族大夫學樵公世煥挽[丙午1966년].

이로 보아 채진두가 「단양팔경」을 지은 연도는 1964년으로 보아야 한다. 이 해에 처음 단양을 여행했다.

채진두가 지은 「단양팔경」시 8개 경의 명칭에 대해 알아보자. 1956년 김상현이 지은 『단양팔경』에 수록한 단양팔경 8개 경의 명칭과 대조해 보니 그와 같다. 채진두의 학문적 식견으로 보아 채진두가 김상현이 지은 『단양팔경』이라는 책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3. 채진두의 가계와 생애

먼저 채진두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 알아보자. 「從仕郎 行文廟 典校 毅齋 蔡公壽藏碑銘 并序」²⁵⁾의 내용을 통해 채진두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서 정리한다. 단기 4296년 계묘[1963년] 십월 일 아들 채홍열(蔡洪悅)이 짓고 족질(族姪) 채광식(蔡光植)이 국역(國譯)하여 행장(行狀)을 대신한다고 서술했다.

1894년생이며 이름이 진두(鎭斗)이며 자(字)를 경육(景六)이라 하였다. 본관은 인천(仁川)이

25) 蔡鎭斗, 『義齋集』, 「從仕郎 行文廟 典校 毅齋 蔡公壽藏碑銘 并序」, 金剛印刷所. 1991. 번역문 242-244쪽. 한문 원문 244-245쪽.

다. 고려의 동지사(同知事) 휘(諱) 선문(先茂)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현관(顯官)으로 알려졌으며 대대로 글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휘(諱) 보문(寶文)은 은성광록대부예부상서(銀星光錄大夫禮部尙書) 보문각대제학금성군(寶文閣大提學錦城君)이다. 휘 귀하(貴河)는 호가 다의당(多義堂)이며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전서(戶曹典書)이고, 정포은(鄭圃隱)·이목은(李牧隱)과 사귀었으며 나라가 망하자 다의현(多義峴)에 숨었는데 두문서원(杜門書院)에 배향됐고 시호는 정의공(貞義公)이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휘 영(泳)이 조봉대부군자소감(朝奉大夫軍資少監)이다. 휘 신보(申保)는 호가 만계(彎溪)인데 충성으로 덕을 쌓아 보조공신(補助功臣) 남양부호부사(南陽部護府使) 증자헌대부(贈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 소성군(邵城君)이다. 휘 용(容)은 사마시와 문과에 등제(登第)하여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지내고 공홍도도사(公洪道都事), 영암군수(靈岩郡守)를 거쳐 나주관병마첨부제사(羅州管兵馬僉節制使)가 되었다. 증조부는 휘 정주(正柱), 조부는 휘 원동(元東)이고, 부친 휘 경우(敬禹)는 경릉참봉(敬陵參奉)이다. 모친 단인(端人) 죽산박씨(竹山朴氏)의 아버지는 휘가 광옥(光玉)이다.

고종(高宗) 갑오(甲午) 2월 18일에 지금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琅城面) 문박리(文博里) 집에서 출생했다. 천성이 인후단아(仁厚端雅)하여 어릴 때에 아이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효우(孝友)하여 자제(子弟)로서의 허물이 없었다. 또한 자라서도 천성이 변치 아니하니 부형이 그 효제(孝悌)를 칭찬했으며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일곱 살에 입학하니 독서를 좋아했고 참봉공(參奉公)이 가르칠만하다 하여 매우 사랑했으며 서당을 열고 선생을 청하여 가르치니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 같이 배우는 이가 많았으며 이에 앞서는 사람이 없었다. 20세에 서해(西海)를 건너 계화도(繼華島)²⁶⁾에 들어가 많은 것을 배워서 돌아오니 고향에서는 책을 끼고 오는 젊은이가 많았는데 정성 들여 가르치고 사람을 대하는데 첫째로 충(忠)과 신(信)을 위주로 하였다.

친척이나 고향 사람 중에 길흉사가 있으면 반드시 달려가서 도왔으며 때를 놓치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친절하게 힘껏 돕곤 하였다.

선조(先祖)를 받드는 일에는 더욱 정성스러워서 여러 대에 걸친 석물(石物)을 모두 갖추었다. 같은 자손이면서 일을 추진하거나 협력하는 이가 없어서 방조(傍祖) 봉안(鳳岩) 선생의 묘갈에 까지 힘을 기울였으니 가군(家君)이 아니었으면 집안의 기강이 서지를 못하였고 향중(鄉中)의 존현(尊賢)하는 일에는 가군이 참여하지 않는 일은 없었다.

결성장씨(結城張氏)는 남편에 따라 단인(端人)이 되었으며 집에서는 효녀이고 채씨가(蔡氏家)

26) 繼華島: 良齋 田愚는 조선 후기 성리학의 대가 任憲晦의 문하에서 20년간 수학했으며 고종 19(1882년) 일시 관직에 나갔으나 곧 사임하고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에 치력했다. 부안·군산 등지의 여러 섬을 옮겨 다니다가 1910년 국권을 상실하자 界火島에 정착하여 “중화사상과 유가사상을 잇는다는 뜻”으로 繼華島라고 부르면서 저술과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지냈다. 1932년 지금의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8 계화도에 건립한 繼陽祠에 배향되었다.

에 출가해서는 효순(孝順)한 며느리가 되었으며 집안의 범백사는 가군은 그 대강만 알고 봉제사, 접빈객 집안의 화목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등의 크고 작은 내조의 힘이 컸으므로 향리에서는 어진 부인이라고 했다.

이번엔 채진두의 스승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의 「훈사간재전선생우(訓辭良齋田先生愚)」를 보기로 하자.

성인(聖人)은 성(聖)스러움의 스승이다. 어찌서인가? 성(性)을 다 했기 때문이다. 본성은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다. 다만 스스로 다 하지 못하니 반드시 성인을 선택하여 스승으로 삼아 그것을 바라고 또 그 본성을 다하는 것이다. 경(卿)은 20세 안팎(妙年)에 뜻이 있어 학문의 바다에 들어가 스승을 구하고 그 섬김이 매우 기이했다. 내가 그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호(號)를 감당할 수 없는데 돌은 없으나 즉 하나를 가지고 있다. 돌아가 그것을 성인의 경험한 것을 구하여, 일용(日用)의 실제에 응용하면 반드시 남아도는 배움이 있으니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강화도에서 병중에 있다(病旅[手戰艱寫:손이 떨려 베껴쓰기가 어렵다]) 마무리를 함을 독실히 하라[敦良²⁷]하니 이것이 나의 선사(先師)가 일찍이 나 전우에게 가르쳐주신 것인데 지금 채진두[景六은 채진두의 字: 인용자주]에게 준다. 증자(曾子)가 “도(道)를 사용하는 곳은 일에 따라 정찰(精察)하여 역행(力行)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오른쪽 15자(字)는 『논어(論語)』 일관장(一貫章) 집주(集註)에 나오니 학자는 자세히 풀어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면, 도에 들어가 덕(德)을 완성할 것이다. 병부(病夫)가 글 끝에 세세히 알린다. 다만 이로써 봉정(奉呈)한다[전우(田愚)가 쓰다]²⁸

위 글에서 간재 전우는 인간 본성을 다 완성한 성인을 선택하여 스승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채진두가 20세 안팎에 스승을 찾아 섬기는 자세를 기이하다고 예찬했다. 그리고 성인이 경험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실제로 응용하기를 요청했다. 또한 시작한 일에 대해 끝맺음을 잘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여 채진두는 평생 지은 시를 잘 갈무리하였으며, 이를 그 장남 채홍열(蔡洪悅)이 『의재집』을 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은 은암(隱菴) 박윤섭(朴允燮)의 「찬의재채진두서(贊毅齋蔡鎮斗序)」를 통해 채진두의 특출하고 뛰어난 점을 알아보자.

박윤섭은 “상당산(上黨山) 앞 청주시에 사는 나의 외우(畏友) 의재(毅齋) 노형(老兄)이 만복(晩

27) 敦良: 『주역』, 「良卦 上九」에 “敦良吉” “멈춤에 독실함이니, 길하다”라고 하고, 「象傳」에 “敦良之吉 以厚終也” “돈간의 길함은 마침을 돈후히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끝을 맺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詩經』에도 “靡不有初 鮮克有終” 처음을 두지 않는 이는 없지만 끝맺음을 두는 이는 드물다.라고 했다.

28) 蔡鎮斗, 『義齋集』, 「訓辭良齋田先生愚」, 239쪽. “聖人聖之師也. 何也 以其盡性也. 性人皆有之, 特以不能自盡, 必擇聖人爲師, 而冀其亦盡乎性也. 卿妙年有志, 入海求師 其事 甚奇然. 余非其人不當其號也. 無二則有一焉. 歸而求諸聖人之經驗諸, 日用之實, 必有餘師而無不足矣. 華島病旅[手戰艱寫], 敦良, 此吾先師所嘗詔愚者, 今以贈景六. 曾子於道之用處隨事精察而力行之. 右十五字出論語一貫章集註, 學者能細繹, 而實體之, 可以入道而成德矣, 病夫得書末由細報, 只以此奉呈[愚]

福)을 구비(具備)하여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것이 많다.”고 채진두가 늦게까지 다른 사람보다 복이 특출하다는 것[特超餘人者]을 강조했다. 첫째로 장수한 것이 특출난 것이다. 둘째, 아들이 효도했다. 박운섭은 아들들의 효행에 대해, 영지(靈芝) 버섯과 물맛이 단 샘물 예천(醴泉)은, 근본이 있고 근원과 이치와 같다고 예찬했다.²⁹⁾

셋째, 채진두가 부유하게 살았다는 점을 꼽았다. 박운섭은 그 이유를 “덕(德)을 쌓은 가문에 아름다운 징조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의재(毅齋)의 복(福)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것이 이것이다”라고 찬양했다. 박운섭은 채진두의 이런 특별하고 뛰어난 것은 말류(末流)에 해당된다고 했다. 다른 무엇이 특별하고 뛰어난 점이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말이다.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어질고 덕을 좋아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선비를 좋아하며 대인관계와 일을 처리하는 사이에 화합하고 포용하는 군자(君子)의 덕(德)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도 모두 천부(天賦)의 진실로 자연 그렇게 된 것이지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가문과 족척(族戚) 중에, 수재(秀才)가 있어, 학업을 하기 불능한 사람에게는 학자금을 힘써 준비해주어 학업에 나가게 해주고, 빈궁(貧窮)하여 굶주리고 궁색한 사람에게는 구휼해서 지급할 때는 더디 지급하지 않고 지급했으면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쌓이면 흠어주고, 얻으면 선용(善用)하니, 고인(古人)도 하기 어려운데, 지금 의재자(毅齋子)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드디어 성의정심(誠意正心)의 공(功)에 전념하고 문득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방법에 힘써, 벗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고, 친구를 사귄 때에는 반드시 단인(端人)을 사귀며, 학문을 좋아하고 행실을 돈독히 하며 인(仁)을 지키고 의(義)에 말미암으니, 집에 거처할 때는 즉 자손을 교육하고, 효제충신으로 하고, 봉우(朋友)를 접할 때는 즉 절차탁마(切磋琢磨)로 사귀며, 위로는 선현을 본뜨고, 아래로는 이 나라 사람을 법으로 삼았다. 혹 여가가 있는 날에는 손으로 성현의 책을 잡고, 악색(岳色) 천성(泉聲) 가운데 글을 읽고, 주옥같은 시를 입으로 발하여, 홍정(泓淨) 풍월(風月)의 아래서 읊조리니 혼연 장차 늙음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의재의 인덕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것이 이것이다.³⁰⁾

위에서 보듯이 채진두는 어질고 덕을 좋아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선비를 좋아하며 대인관계

29) 蔡鎮斗, 『毅齋集』 권7, 「贊毅齋蔡鎮斗序 隱菴 朴允燮」, 247~248쪽, 上黨山前, 清州市, 吾畏友毅齋老兄之晚福具備, 特超餘人者, 多矣. 毅齋稟質清秀, 骨格堅剛, 平生無疾病, 而好過七十有二矣. 到老還少, 而將至八耋九耄, 能是, 則毅齋之壽, 特超餘人者, 此也. 又有大孝之子, 出告反面, 昏定晨省, 無時, 或怠教之戒之, 使之令之, 一不違命, 真其欲爲親之喜, 恒其爲親之樂, 志體之養出於天性, 可謂有是父有是子, 則靈芝醴泉, 有本有源理, 所固然也.

30) 蔡鎮斗, 『毅齋集』 권7, 「贊毅齋蔡鎮斗序 隱菴 朴允燮」, 247~248쪽. “爲仁好德, 愛人好士, 接人處事之間, 有雍容君子之德, 此皆天賦之真, 自然而然也, 非偶然而然也. 門黨族戚, 有秀才, 不能學者, 辦備學資, 因令就學, 有貧窮飢寒者, 賑給不遲, 給不責償, 積而能散, 得而善用, 古人所難, 今於毅齋子, 見之矣. 遂專於誠意正心之功, 輒勉於修己治人之方, 擇友必勝己, 交友必端人, 好學篤行, 居仁由義, 居家, 則教子孫, 以孝悌忠信, 接朋友, 則交以切磋琢磨, 上以模乎先賢, 下以法乎此邦, 或以暇日, 手執聖賢之書, 啣唔於岳色泉聲之中, 口吐珠玉之詩, 吟哦於泓淨風月之下, 欣然不知老之將至, 此乃毅齋之仁德, 特超餘人者, 此也.”

와 일을 처리하는 사이에 화합하고 포용하는 군자의 덕을 가지고 있다. 박윤섭은 이것도 모두 천부적(天賦的)인 것으로 간주했다.

가문과 족척(族戚) 중에 가난한 수재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했으며, 빈궁하여 굶주리는 사람을 구휼했다. 그런데 주어야 할 때는 신속하게 지급했으며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쌓이면 흠어 주고, 얻으면 선용했다. 박윤섭은 이런 선행도 고인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예찬했다.

그 외에도 사람으로 유학자로 지켜야 할 덕목을 잘 이행했다. 혹 여가에는 성현의 책을 읽고, 주옥같은 시를 지어 홍정(泓淨) 풍월(風月)의 아래서 읊조리고 살아 늙음이 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박윤섭은 이런 의재의 인덕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것이라 찬양했다.

네 번째를 보자. 다음 내용을 읽어보자.

지금 의재자(毅齋子)에게서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성인을 존중하고 현인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 문묘, 서원, 향사(鄉祠)에, 재산을 내어 보수하여, 춘추의 향사에 비와 눈을 피하여, 재(齎)를 성실히 하고 반드시 참여하니 지금과 같이 예의가 땅을 쓸고 가는 시대에 진실로 문로(門路)의 바름이 아니면, 힘써 행하는 돈독함과 그 발휘하여 응용함이 이와 같겠는가. 내가 선(善)에 보고 느끼는 것이 많다. 채씨(蔡氏)가 그 사람이니 인천이 그 본관이며 진두는 그 이름이며, 의재는 그 호이다. 아름다운 일과 위대한 행실이 이와같이 늦복을 구비했다고 일컬으니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고 뛰어나다는 것이 이것을 일컫는다.³¹⁾

박윤섭은 채진두가 하기 어려운 일을 행했다고 했다. 즉 성인과 현인을 존중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 문묘, 서원, 향사를 보수할 때 재산을 내었다. 그래서 춘추의 향사에 비와 눈을 피하여, 재(齎)를 성실히 하고 반드시 참여했다. 이런 채진두의 행자에 대해, 박윤섭은 “지금과 같이 예의가 땅을 쓸고 가는 시대에 진실로 문로의 바름이 아니면, 힘써 행하는 돈독함과 그 발휘하여 응용함이 이와 같겠는가.”라고 극찬했다.

대개 남에 대한 찬양문을 지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짓는다. 박윤섭의 찬양문에서 보듯이 채진두는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네 가지 특별하고 뛰어난 선행을 실천했다. 이런 그의 선행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4. 채진두의 『의재집(毅齋集)』 - 당시 시대상의 시문학적 발현

31) 蔡鎮斗, 『毅齋集』 권7, 「贊毅齋蔡鎮斗序 隱菴 朴允燮」, 247-248쪽. “今於毅齋子, 可見行於難行之事也. 尤有尊聖慕賢之心, 文廟書院鄉祠, 出財補修, 春秋享祀, 不避雨雪, 而齎誠必參, 如今禮義, 掃地之時, 苟非門路之正, 力行之篤, 其發揮之用, 能如是乎. 余觀感於善者, 多矣. 蔡其氏也, 而仁川其貫也, 鎮斗其名也, 而毅齋其號也. 美事偉行, 如是而向所謂晚福具備, 特超餘人者, 此也云爾.”

시로서 당시 인정세대를 묘사하는 것은 시인과 문인의 역할이자 도리이다. 청주지역에서 있던 공식행사 등에 대해 축시 또는 기념시를 지었다. 『의재집』 권 1에 실린 시의 제목 몇몇을 제시한다.

54쪽 「權花[憂國老人會]. 62쪽 「龍岩寺小會. 64쪽 「成均館全局儒林總會[在清州鄉校典校時]. 「欲謁聖廟當拒絕[時儒道人士二派, 分裂, 入成均館, 當拒絕]. 65쪽 「道義政治. 66쪽 「上李大統領. 67쪽 「李大統領頌德詩. 「大韓統一[全國白日場大會]. 「增坪檀君殿[陽十月三日開天節]. 72쪽 「樂健亭 蘭菊稷員一同. 73쪽 「中央公園敬老堂小會. 「瑞雲洞雅會. 「江外 仁山智水亭 落成韻. 74쪽 「道義韓國誌贊頌詩. 75쪽 「柳校長卅週年紀念韻[代族弟祐錫作]. 「登燕岐三岐里林氏獨樂亭. 76쪽 「敬次閩慶陽坡亭八景韻. 79쪽 「三一節. 「矗石縷懷古. 「夫餘八景 扶餘山暮雨 落花巖宿鶻. 水北亭晴嵐, 窺巖津歸帆, 百濟塔夕照, 阜蘭寺晚鍾, 白馬江浸月, 九龍坪落鴈[以上 夫餘八景]

위에서 보다시피 우국노인회(憂國老人會)와 성균관전국유림총회(成均館全局儒林總會[在清州鄉校典校時])에 대한 내용을 시로 지었다. 강외면(江外面) 인산지수정(仁山智水亭) 낙성(落成)을 기념한 시 등도 있다.

다음은 『의재집』 권 2에 실린 시의 제목 중에 몇몇을 제시한다.

83쪽 「尤庵先生神道碑閣重修韻. 85쪽 「孝子卞榮萬. 86쪽 「趙炳天孝子碑韻. 「蓮亭趙炳天 孝子碑韻[代 李鍾熙作]. 88쪽 「靑岩金元根翁挽. 89쪽 「任益幸先妣柳氏旌閭表彰韻. 90쪽 「雲南李博士挽[承晚]. 91쪽 「次賢都江阜祠原韻[二首]. 100쪽 「贈敬庵曹龍承. 106쪽 「可東李明求自敘傳表彰韻. 「遊栢谷貯水池[西原同志會員一同]. 「柳汀韓軾東追募韻[代又汕鄭元相]. 108쪽 「吳石農震泳石儀韻. 109쪽 「老洲良齋石農三先生景仰祠奉安韻. 「淸谷姜公希明墓碑建立韻. 「全國宗親錄寫眞明鑑韻. 110쪽 「竹澗申天錫挽. 「祝賀大韓弘益報社新聞創刊. 187쪽 「春溪宋[성명 宋義燮: 인용자 주]先生文集序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암선생신도비각중수운(尤庵先生神道碑閣重修韻), 「연정(蓮亭) 조병천(趙炳天) 효자비운(孝子碑韻), 「우남이박사만(雲南李博士挽), 「가동이명구자서전표창운(可東李明求自敘傳表彰韻), 「축하대한홍익보사신문창간(祝賀大韓弘益報社新聞創刊), 「춘계송선생문집서(春溪宋先生文集序) 등 당시 청주지역에서 거행했던 행사, 청주지역 인사들의 시문에 서문 등을 지었다.

이렇듯 채진두는 자기가 사는 당시 청주지역과 청주인근에서 거행한 행사와 인물들에 대한 시를 지었다. 따라서 당시 청주시 인정세대 인물들의 활동상을 알 수 있어 일면 청주일대의 정황을 시로 쓴 시사(詩史)라고 할 수 있다.

5. 채진두의 문학과 팔경구곡(八景九曲)에 대한 인식

1) 채진두의 문학과

채진두가 문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많은 시문을 짓게 된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자서(自序)」를 보자.

옛날의 군자는 덕을 숭상하기도 하고 숭상하지 않기도 하니 우암 송시열(文正)은 송시열의 시호: 인용자주)은 소위 역사녕야지의(與史寧野之意)³²⁾로, 그것을 덕으로 드러냈는데 마음속에 쌓인 것을 영화(榮華)로 발하게 되어 스스로 가리지 못한 바가 있으니 즉 후에 스스로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즉 후에 살펴보아 덕을 반드시 문장에 써서 그것을 구하여 덕을 진실로 숭상했다. 문(文)은 그것을 적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文이 있지 않으면, 많은 덕(德)의 영화는 비록 일언(一言)이라도 그것이 후세에 전해져 즉 영금편옥(零金片玉)과 같아 사람이 모두 그것을 보배로 아쉬워하여, 전하고자 기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전해지니, 덕이 없는 말을 비교해보지 않고 장황하게 책을 편찬하니, 비록 실제로 지은 작품이 많더라도 사람에게 무익하니 그것을 취하지 말아야한다. ³³⁾

윗글을 통해 채진두가 송시열을 흠모 숭상하고 그의 문장법을 본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채진두는 덕을 많이 담은 영화로운 글은 비록 일언이라도 그것이 후세에 전해져 즉 영금편옥과 같이 보배롭게 전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글을 지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서(自序)」 다음 내용을 읽어보자.

나는 시문(詩文)에 능한 사람이 아니나, 사우간(士友間)에 출입하여, 서찰을 주고받으며 한훤(寒暄)³⁴⁾에 감정을 서술했다. 또 시를 짓는 친구간에 노닐면서, 오직 고인의 남긴 찌꺼기 [糟粕]³⁵⁾를 흠쳐 쪼아내고 아로새겨[琢婁 雕鏤], 처음 옥처럼 아름다운[瓊珮] 소리를 내는 것

32) 與史寧野之意: 史는 문사를 말하고 野는 실상을 말한다. 사와 야는 공자가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 “질이 문을 이기면 야가 되고 문이 질을 이기면 사가 되니, 문과 질이 잘 어울린 뒤에 군자이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論語』, 「雍也」. 朱子는 『論語集註』에서 야는 야인으로서는 비루하고 소략함을 말한다고 하고, 사는 문서를 담당하는 관리로서 건문이 많고 사무에 익숙하기는 하나 성의가 부족함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文勝而至於減質, 則其本亡矣, 雖有文, 將安施乎? 然則與其史也, 寧野.” “문이 이겨서 질을 멀하는 데 이르면 그 근본이 없어지니 비록 문이 있으나 장차 어디에 베풀 것인가? 그렇다면 사이기 보다는 차라리 야인 것이 낫다.”라고 말한 귀龜山 楊時(1053~1135)의 설을 소개하였다. 曹兢燮(1873~1933), 『巖棲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제350집) 「枝山遺稿序 辛未」.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김홍영 번역, 2015. 각주 참고.

33) 蔡鎮斗, 『毅齋集』, 「自序」. “古之君子尙德不尙, 文正夫子所謂 與史寧野之意, 而德之. 蘊於中者, 發爲榮華, 自有不可掩, 則後之考, 德之必於文而求之, 德固尙矣. 文可少之哉. 然文不在, 多德之榮華. 雖一言而可以傳諸後, 則如零金片玉, 人皆寶惜之, 不期傳而自傳, 不比無德之言, 張皇 [纂]組卷帙, 雖多實無益於人, 而莫之取也.”

34) 寒暄: 날씨의 춥고 더움. 곧 安否.

이 없이, 메뚜기 우는 소리, 지렁이 우는 소리와 같이, 계절의 벌레의 감각으로 때로 다만 산 천, 도로 여행하는 감회, 꽃과 달, 봉우들과 음주, 기분 나게 다니는 정취를, 기량(技倆)대로 읊조려 스스로 완성하였다. 문득 얻은 것을 따라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무릇 약간 편이 거의 소위 연석(燕石)³⁶을 품고 변수(卞³⁷隋³⁸)와 같은 보석을 찾고, 노둔하고 게으른 말[驚駘]을 다스려 기연(冀³⁹涓⁴⁰)의 준마(駿馬)를 흉내 내려는 것은, 마음은 달라도 발자취는 같으니, 비록 초람자(招覽者)가 비웃더라도 그 그윽한 회포를 서술하는데 또한 일조가 될 것이다.⁴¹

채진두는 시문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 산천에 여행다니고 자연 감상한 소감 등을 지은 작품을 모아놓았다. 뛰어나지 않은 데도 뛰어나게 해보려고 노력한 작품이라는 점을 슬회했다. 그래서 비록 초람자가 비웃더라도 그 그윽한 회포를 서술하는데 또한 일조가 될 것이고 그 의미를 토론했다.

2) 채진두의 팔경 구곡에 대한 관심

이제 채진두의 팔경 구곡에 대한 관심에 대해 알아보자. 채진두가 「단양팔경(丹陽八景)」을 지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채진두의 『의재집』에 수록된 시 중에 구곡에 대해 지은 시가 1편, 팔경에 대해 지은 시가 「단양팔경」을 포함해 4편이다. 즉 다음과 같다.

65~66쪽 「華陽九曲」. 76쪽 「敬次聞慶陽坡亭八景韻」. 79~80쪽 「夫餘八景」 扶蘇山暮雨 落花岩宿煙, 水北亭 靑嵐, 窺岩津歸帆, 百濟塔夕照, 阜蘭寺晚鐘, 白馬江沈月, 九龍坪落鴈[以上 夫餘八景. 119~120쪽 「慶北 安東郡 豐山邑 西美發韓村 八景吟」. 70쪽 「濟州道旅行 并序 盖夫詩言志 歌永言, 此乃古聖人之遺訓而今我年之六五, 可謂桑榆之年也. 戊戌[1968년]…觀覽濟州八景到處…」

35) 糟粕 : 학술·예술 등 옛 사람이 다 밝혀내고 남은 찌꺼기라는 뜻.

36) 송나라의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옥돌과 비슷한 보통의 돌멩이인 燕石을 보옥인 줄 알고 주황색 수건으로 열 겹을 싸가지고 깊이 보관하다가, 周나라의 어떤 나그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는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48 「應劭列傳 註」.

37) 卞和의 玉: 천하 제일의 옥을 가리키는 말이다. 和氏之璧이라고도 한다. 『韓非子』.

38) 隋侯의 珠: 보옥이라는 뜻.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隋侯에게 구슬을 물어다 준 뱀,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후한의 楊寶에게 큰 구슬을 물어다 준 참새의 고사가 있다. 『淮南子』, 「覽冥訓」. 『搜神記』 卷 12.

39) 冀北: 伯樂이 한번 冀北의 들을 지나면, 무리진 말들이 마침내 덤비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 인해서 冀野 또는 冀北은 '인재가 모여있는 곳'이라는 뜻이 되었다. 韓愈, 「送溫處士赴河陽軍序」.

40) 涓市의 驅의 駿馬. 명마 즉 우수한 것이라는 뜻으로 쓰인 듯.

41) 蔡鎮斗, 『毅齋集』, 「自序」. “余非能詩文者, 而出入於士友間, 以書札往復寒暄敘情焉. 又遊於詩徒間, 唯竊古人糟粕琢婁雕鏤, 初無瓊珮之放聲, 而如蛩音蛄叫, 候蟲之感, 時 但山川道路羈旅之懷, 花月朋酒歡適之趣, 技倆所使吟哦自成. 引輒隨得隨錄. 凡若千編, 殆與向所謂懷燕石而掇寶於卞隋, 御驚駘而擬駿於冀涓者, 心則異, 跡則同, 雖招覽者之笑然, 其於暢叙幽懷, 亦是一助云爾.”

위와 같이 채진두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시와 산문을 지었는데 관광지 근처에 존재하는 팔경과 구곡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그에 대한 시를 지었다.

1968년 제주도를 여행하고 남긴 글을 보자. 「제주도여행병서(濟州道旅行并序)」 일부이다.

“대개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며, 노래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옛 성인의 유희이다. 지금 내 나이 65세이니 만년의 나이라⁴²⁾할 수 있다. 무술(戊戌, 1968년) 9월 14일, 제주 여행을 작정하고, 벗 김은배(金殷培)와 동반(同伴)했다. 고어(古語)에 말하기를 “두 사람이면 간단하고[二口單] 세 사람이면 품격이 맞고[三口品], 네 사람이면 시끄럽다[四口囂]”라고 했다. 겨우 두 사람[單行]으로 참여하여 세 사람[品]에 미치지 못했다. 비록 섭렵하는데는 부족하나 또한 사구효(四口囂)보다 낫다. 조치원으로부터, 대전에 도착해서, 전남 목포에서 하루 잤다. 이튿날 오후 3시 반, 기선(汽船)을 타고, 이튿날 오전 3시에, 북제주(北濟州)에서 내려서, 자동차를 타고 130리를 가서 모슬포(擘瑟浦)에 도착했다. 은배의 장남 종고(鍾鼓)가, 4일 연속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여 중간에 차를 잡아, 제주팔경(濟州八景) 도처(到處)를 관람하고 촬영했다. 돌아오는 길은 비행기를 탑승하여, 부산에 착륙하여, 유성목(柳聖睦)에 집에 들러 하루 밤을 잤다. 이튿날 오전 10시, 급행열차를 타고, 오후 4시 반, 조치원에 도착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무릇 8일간에, 3천여 리를 두루 다녔다.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다니면서 소감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음풍영월(吟風詠月)하니, 시조(時鳥) 후충(候蟲)의 읊조림에 불과하다. 그러나 창가(蒼葭), 백로(白露) 시물(時物)의 변화이다. 요요(嚶嚶) 만만(蠻蠻), 충조(虫鳥)의 읊조림이다. 돌아보니 내가 지금 이 읊조림이 또한 사물에서 느낀 것을 말에 발휘하는 것이다. 이에 쇠뿔치 가운데[鐵中]의 쟁쟁(錚錚)⁴³⁾으로, 감히 이것은 즐렬함을 망각하고 칠언절구 몇 수를 지어 완성했다.”⁴⁴⁾

채진두가 제주도로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친구 은배의 장남 종고가 제주도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은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마음 놓고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 돈도 적고 제주도에 숙박할 연고자도 없으면 제주도여행은 쉽지 않았다. 채진두는 제주

42) 桑榆: 東隅는 해가 뜨는 곳이고 상유는 해가 지는 곳이라 한다. 즉 동우는 인생의 초년을, 상유는 인생의 만년을 비유한다. 마원(馬援)이 “始雖垂翅回谿 終能奮翼甦池 可謂失之東隅 收之桑榆” 즉 “처음에는 비록 회계에서 날개를 드리웠지만 마침내 민지에서 날개를 떨칠 수 있었으니, 동우에서는 잃었지만 상유에서 거두었다 할 수 있다.”하였다.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43) 鐵中 錚錚: 같은 무리 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後漢 光武帝가 徐宣에게 “卿所謂鐵中錚錚” 즉 “경은 이른바 쇠 중에서도 정평 울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한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11, 「劉盆子列傳」.

44) 『毅齋集』 권1 71쪽. “「濟州道旅行 并序 盖夫詩言志 歌永言, 此乃古聖人之遺訓而今我年之六五, 可謂桑榆之年也. 戊戌[1968년] 九月 十四日 作 濟州旅行, 與金友殷培同伴矣. 古語云二口單三口品四口囂而纔參單行, 不及品, 雖涉不足, 亦愈於四口囂, 而自鳥致院, 至大田, 全南木浦一宿. 翌日午後三時半, 乘汽船, 而翌日午前三時, 下陸北濟州, 乃以動車行百三十里, 至擘瑟浦. 殷培長胤鍾鼓, 許四日留連, 中間而執車, 觀覽濟州八景到處, 攝影, 回路搭乘飛行機, 釜山下陸, 訪柳聖睦家一宿. 翌日午前十時, 而急行列車, 午後四時半, 鳥致院到着, 而還家. 凡八日間, 週行三千餘里也. 雖然隨遇所感, 不可無紀念. 故吟風詠月, 不過時鳥候蟲之吟也. 然蒼葭白露時物之變也. 嚶嚶蠻蠻, 虫鳥之吟也. 顧余于今, 此詠亦感於物, 而發於辭者也. 乃以鐵中錚錚, 敢此忘拙, 構成七絕幾首.”

도로 갈 때는 목포에서 북제주항에 도착하였다. 돌아올 때는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 공항으로 해서 왔다.

채진두는 제주여행을 하고 제주팔경을 시로 남겼다. 다음과 같이 시의 제목만 제시하기로 한다. 『의재집』 권1, 70~71쪽에 다음 시들을 수록했다.

「以埃僉詞伯之斤正, 亦一時觀覽之一事云爾」. 「到木浦」. 「登木浦鑰達山」. 「南濟州摹瑟浦」. 「登山房山石窟[此下濟州八景]」. 「安德溪谷」. 「天帝淵」. 「天池淵」. 「西歸浦正房瀑布[東洋瀑布不爲不多, 而即接落海, 惟此一云也]」. 「城山浦日出峯」. 「金寧蛇窟」. 「北濟州市 三姓穴[此上濟州八景]」. 「過新孝里宋文玉橘園」. 「濟州牧場」. 「乘飛行機」.

필자가 1971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1968년 채진두가 관광한 제주팔경을 관광하는 것에 그쳤다. 그때 조치원에서 밤열차를 탔는데 아침에 목포에 도착했다. 낮에 유달산에 노적봉에 올라가 삼학도등 목포 앞바다를 감상했다. 오후 늦게 제주행 배를 타고 저녁에 제주항에 도착하여 저녁밥을 먹었다. 3박 4일 일정이다. 굴 1상자에 2,500원, 국립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25,000원 선, 쌀 한 가마니 4천원, 고등학교 한 학시 등록금 7천원 정도였다. 굴나무 한 그루에서 10상자를 수확한다 하여 그 때는 굴나무를 대학나무라 했다. 격세지감이다.

열차 통로사이를 오가면 김밥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김밥이십원”하고 외쳤다. 그때는 모두 집에서 김밥을 싸가지고 가서 우리학교 친구들은 거의 김밥을 사먹지 않았다. 속으로 김밥이 10원이라는 줄로 알고 참 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무심코 김밥이 10원이면 참 싸게 판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누군지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20원이라.”, “10원이 아녀.”. ““김밥이 이십원”이라는 말인데 줄여서 ‘김밥이십원’하는 거라.” 김밥이 이십원인데 김밥이 십원으로 알아들은 것이다. “어떻게 알었어.”, “10원인줄 알고 10원을 주니 20원이라고 하더라구.”

열차가 당시 배의 주산지인 나주지역을 통과하는데 아주머니들이 배를 머리에 이고 타더니 “물이 짝 짝 나는 내배 사이소”라고 한다. 면적이 넓지 않은 한 나라인데도 언어표현의 차이와 말도 간편하게 발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채진두가 제주여행한 후 3년이 지난 후라 채진두가 제주여행하던 때와 그 인정세태가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1971년 당시 시대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팔경을 언급한 자리에 참고삼아 적어놓는다.

이번엔 구곡에 대한 인식을 보기로 하자. 채진두의 『의재집』 273쪽 「의재외집(毅齋外集) 수견문록(隨見聞錄)」을 보기로 하자.

「수견문록」. 고산구곡(高山九曲)은 담로(潭老) 즉 울곡을 만나 그 이름을 남기게 됐으며, 화양일동(華陽一洞)은 우옹(尤翁)을 만나 성색(生色)이 났다. 대개 숨은 군자가 있어, 도덕이

빛나서 이 산으로 하여금, 낙막(落寞)하지 않게 했으니, 석담구곡(石潭九曲) 즉 고산구곡과 화양구곡이 유명해진 것이 어찌 오로지 그 산수의 아름다움만으로 명성이 났겠는가?⁴⁵⁾

이런 관점은 유종원(柳宗元)의 「옹주마퇴산모정기(邕州馬退山茅亭記)」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무릇 아름다움은 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난다. 난정(蘭亭)이 왕희지(王羲之, 307~365)를 만나지 못했다면 맑은 여울과 수죽(脩竹)이 공산(空山)에 묻혔을 것이다⁴⁶⁾라고 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문인들은 산수는 그 산수에 인연을 맺은 훌륭한 인물의 명성에 의해 그 성가(聲價)가 증가된다고 여겼다. 필자는 이를 적임자를 기다려 그 임무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대인증무설(待人贈務說)이라 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채진두는 그 시대 정통 유학자답게 주자의 「무이도가」와 율곡의 「고산구곡가」, 우암으로 인해 화양동이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채진두의 「단양팔경」 중에 중선암을 읊은 시에 “개중기절(箇中奇絶)”은 「무이도가」에 들어있는 “개중기절처(箇中奇絶處)”를 따다 쓴 것이다. 이런 채진두의 학문과 문학적 소양이 화양구곡과 단양팔경에 관심을 갖고 시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6. 채진두의 「단양팔경」에 대한 분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56년 김상현(金相顯)이 지은 『단양팔경』에 수록된 단양팔경은 하선암(下仙岩), 중선암(中仙岩), 상선암(上仙岩), 구담봉(龜潭峰), 옥순봉(玉筍峰), 사인암(舍人岩), 도담삼봉(島潭三峰), 석문(石門)이다. 1977년 간행한 『단양군지』에는 다음과 같이 그 순서를 정했다. 제1경 하선암(下仙岩), 제2경 중선암(中仙岩), 제3경 상선암(上仙岩), 제4경 구담봉(龜潭峰), 제5경 옥순봉(玉筍峰), 제6경 도담삼봉(島潭三峰), 제7경 석문(石門), 제8경 사인암(舍人岩)이다.

채진두가 지은 단양팔경의 8개 경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도담삼봉, 석문, 사인암,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구담봉, 옥순봉이다. 1977년 『단양군지』에 기록한 8개 경의 순서대로 지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경의 명칭은 같다. 채진두의 단양팔경시는 경의 순서를 기술하지 않았다. 필자가 보기엔 채진두가 관광하기 편리한 여정을 따라 단양팔경을 순회했다고 본다. 2003년 필자도 이 순서대로 답사한 적이 있다. 채진두가 지은 단양팔경시는 1964년으로 채진두의 나이 70에 지었다. 채진두의 출생연도로 보아 채진두는 전통공부방식으로 한문학을 공부하여 한시를 지을 수

45) 蔡鎮斗, 『毅齋集』, 「毅齋外集 隨見聞錄」 273쪽. 高山九曲得潭老, 留名. 華陽一洞于遇尤翁生色. 蓋世有隱君子, 道德炳然. 使此山 不落寞, 得石潭華陽. 奚足爲專美哉.

46) 柳宗元, 『柳河東集』 권27, 「邕州馬退山茅亭記」. “夫美不自美, 因人而彰, 蘭亭也不遭右軍, 則清湍脩竹蕪沒於空山矣.”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단양팔경 8개 경 전체에 대해 지은 시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64년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 여행비 등 모든 여건으로 보아 충북에 사는 사람도 단양팔경을 관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채진두가 지은 단양팔경시를 살펴보면 도담삼봉, 석문, 사인암,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구담봉, 옥순봉 등의 순서로 지었다. 사인암 제1구에 “동차도착사인암(動車到着畵人峯, 자동차 타고 사인암에 도착하니)”라는 시구가 있다. 이로 보아 자신이 탐방유람한기 순서대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채진두는 도담삼봉으로부터 옥순봉까지 관광하기 편리한 순서대로 여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의재집』에 “島潭三峰(丹陽八景)”과 같이 서술하고 이어서 그 다음 사인암, 마지막에 옥순봉에 대해 지었다. 따라서 편의상 채진두가 관광한 순서를 8개 경의 순서를 보기로 한다.

제1경 도담삼봉⁴⁷⁾을 보자.

島潭三峰(丹陽八景)

生平初到石三峰 평생 처음 돌로 이루어진 도담삼봉에 도착하니,

一棹渺然泛水溶 한 척의 배 아득히 물 위에 떠가네.

巖上孤亭誰所作 바위 위에 홀로 있는 정자 누가 지었는고?

夜來月色正濛濛 밤이 되니 달빛이 참으로 은은하고 짙게 비치네.

1~2구를 보자. 제1구의 내용으로 보아 채진두는 평생 처음 별려서 도담삼봉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야 시간이 되면 자가용으로 청주에서 1시간 남짓 걸릴 것이다. 한 척의 배가 아득히 물위에 떠간다. 영춘방면과 충주방면으로 오가는 배였을 것이다. 1~2구의 내용을 통해 당시 도담삼봉을 관광하러 가는 것도 어렵다는 점과 영춘 단양 충주를 잇는 배가 왕래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청주에서 단양까지 거리는 서울에 가는 거리와 거의 같다. 지금 단양을 가려면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제천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단양가는 버스를 타거나 단양행 버스를 타야한다. 당시 버스가 자주 있었는지 지금 필자는 알 수 없다. 필자가 1979년경 제천에서 영춘 구인사를 가는데 다리가 없어 배로 버스를 건너 주었다.

3~4구를 보자. “바위 위에 홀로 있는 정자 누가 지었는고?” 정자를 누가 지었는지 절묘한 위치에 지었다는 점을 의문문으로 강조한 것이다. 밤이 되어 달빛이 은은하고 짙게 비칠 때 도담삼봉에 지은 정자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시의 내용으로 보아 채진두는 도담삼봉 근처에서 숙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도담삼봉시를 읽으면 도담삼봉과 주변 정경을 연상할 수 있다. 그는 시를 읽으면 그림과 같이 그 실상을 연상할 수 있다는 시중유화적(詩中有畫的)으로 시를 지었다.

47)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33(하괴리 84-1)

제2경 석문⁴⁸⁾을 보자.

石門

鑿斧龍門劈石門, 용문을 뚫고 도끼로 찍어 석문을 깎아 세우니,
鎗筭一窟晝浸昏. 행하니 굴 하나 어둡컴컴하게 되네.
漢南江水深深碧, 남한강물 깊고깊이 푸르러,
到此詩人欲斷魂. 이곳에 온 시인 혼이 끊어지려 하네.

1~2구를 보자. 용문을 도끼로 찍어 석문을 만들었다. 용문은 중국에 있다. 석문이 어렵고 신비롭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비유한 것이다. 석문이 뚫어진 굴 안은 어둡컴컴하다. 석문의 실상을 사실대로 그렸다. 3~4구를 보자. 석문에서 내려다보는 남한강물이 깊고 푸르다. 이 정경을 바라 본 시인 즉 채진두의 혼이 끊어지려한다. 석문과 남한강물이 연출한 비경에 넋을 잃었다는 말이니, 그 비경을 비유적으로 잘 묘사하였다.

제3경 사인암⁴⁹⁾을 보자.

舍人岩

動車到着舍人岩, 자동차 타고 사인암에 도착하니,
岩下蕭條一小菴. 사인암 아래 쓸쓸하게 하나의 작은 암자 있네.
行履忽忽離別意. 발걸음 언뜻언뜻 이별해야하는데,
蒼茫雲樹遠含情. 푸르게 구름 낀 나무가 멀리 정을 품고있네.

1~2구를 보자. 도담삼봉과 석문을 관람하고 사인암까지 자동차를 타고 갔다고 그 이동수단을 1구에 실었다. 채진두가 단양팔경을 여행한 해가 1964년이다. 사인암 아래 쓸쓸하게 하나의 작은 암자가 있다. 당시 사람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나보다. 지금도 암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청련암이다. 3~4구를 보자. 사인암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아쉬움을 3구에 담았다. 4구에 “푸르게 구름 낀 나무가 멀리 정을 품고 있네.”라고 했다. 채진두는 사인암에서 떠나기 싫다는 감정을 이입한 것이다. 이렇듯 우회적으로 그 아쉬움을 그렸으니 표현법이 양호하다.

제4경 상선암⁵⁰⁾이다.

上仙岩

柝石奇岩聳作峰, 괴석기암 솟아서 봉우리를 이루고,
蒼蒼蕪苑密森松. 푸르고 푸른 언덕에 소나무가 짙 서있네.

48) 충청북도 단양군 매폍읍 삼봉로 644-33(하괴리 84-1)
49)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길 37(사인암리 64)
50)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선암계곡로 790(가산리 산 69-16)

川流激石喧騰處, 흐르는 물이 돌에 부딪쳐 요란하게 소리나는데.
窈窕崎嶇路幾重. 아늑하고 구불구불 길은 몇 겹이고?

1~2구를 보기로 하자. 상선암의 비경을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했다. 기암괴석에 푸른 소나무가 뻗뻗하게 밀집해 서있다. 상선암의 실경을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상선암의 암봉과 소나무를 통해 강인함과 절개를 염두했을 수 있다, 3~4구를 보자. 상선암 아래 흐르는 물소리가 요란한데 그 물줄기가 몇 겹을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 무한하다는 의미를 의문문으로 강조했다.

다음은 제5경 중선암⁵¹⁾이다.

中仙岩
北之來龍作高山,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용맥이 높은 산이 되고,
盤石平鋪兩峽間. 반석이 두 골짜기 사이에 평평하게 펼쳐졌네.
蒼蘚層岩千古老, 층암에 푸른 이끼가 천고에 오래 묵었으며
箇中奇絕別區家. 그 가운데 기절처인 별천지가 있네

1~2구를 보자. 중선암을 북쪽에서 내려온 용맥이 융기한 영산으로 보았다. 개울 바닥이 반석이다. 골짜기 사이에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 중선암의 실경을 연상하게 한다. 3~4구를 보자. 3구에서 층층이 쌓인 바위에 이끼가 아주 오래됐다. 삼선암의 신비로움이 오래전에 형성됐다는 비유다. 4구에서 “개중기절(箇中奇絶)”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棹歌)」 서가(序歌)에 나오는 시구이다. 그리고 채진두는 「화양구곡」을 지었다. 이렇듯 채진두는 정통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 시대 유학자들의 문예사조를 숙지하고 실천한 것이다. 이런 채진두의 팔경 구곡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식견있는 유학자라면 주자의 「무이도가」는 기본으로 알고 있었다. 참고로 “箇中奇絶”이 들어있는 「무이도가」 서가를 소개한다. 성균관대학교 송재소 교수의 번역을 싣는다.

무이도가(武夷棹歌)
무이산상유선령, 산하한류곡곡청. 옥식개중기절처, 도가한청양삼성.
(武夷山上有仙靈, 山下寒流曲曲清. 欲識箇中奇絶處, 棹歌閑聽兩三聲.)
무이산위에는 선령이 있고, 산 아랫 찬물결 구비구비 맑은데
그 중에 기절처 알고 싶으면, 한가롭게 도가소리 들어보게.

이렇듯 채진두도 단양팔경을 지으면서 주자의 「무이도가」의 시구를 인용했던 것이다.

51)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선암계곡로 868-2(가산리 877)

제6경 하선암⁵²⁾이다.

下仙岩

滿山黃葉菊秋節, 온산에 단풍이 들고 국화꽃 피는 계절,
到此騷人興不收. 이곳에 온 시인 흥을 거두지 못하네.
澗畔遲遲松特立, 바위 물가에 드문 드문 소나무 우뚝 서있으며,
寒聲冽冽水長流. 차갑고 시원한 물이 소리를 내며 멀리 흘러가네.

1~2구를 보자. 하선암 일대 산 전체가 단풍이 들고 들국화가 만개했다. 그 승경을 보는 시인이 흥을 거두지 못할 정도이다. 3~4구를 보자. 물가에 있는 바위틈에 드문드문 난 소나무가 우뚝하다. 역경을 극복하고 우뚝 자란 소나무를 바라보면 그 기개를 연상하고 있는 것이다. 차갑고 시원한 물이 소리를 내며 멀리 흘러간다. 유학에서는 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을 보면서 학문과 인생도 쉬지 말고 노력해야한다는 교훈을 주는 대상으로 여겼다. 채진두도 그런 생각을 하며 하선암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을 수 있다.

제7경 구담봉⁵³⁾이다.

龜潭峰

峻嶒石壁下龜潭, 높고 높다란 석벽 아래 구담,
峯上歸雲藏宿雨. 봉우리 꼭대기 돌아가는 구름 묵은 비를 머금었네.
江口津船來去數, 강 어구 나룻배 오가는 사람 자주 태워 나르고,
霜風黃葉盡紅酣. 서리 바람에 누런 낙엽 모두 빨강게 물들었네.

1~2구를 보자. 높은 암벽아래 못이 구담이다. 봉우리 꼭대기에 떠가는 구름이 묵은 비가 머금었다. 구담봉 봉우리가 높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3~4구를 보자. 강 어구 나룻배 오가는 사람 자주 태워 나른다. 채진두가 단양팔경을 찾은 시기는 1964년으로 충주댐이 완공되기 전이다. 장희나루에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는 정경이다. 제4구에 “서리 바람에 누런 낙엽모두 빨강게 물들었네.”라고 했다. 이를 통해 채진두가 단양팔경을 찾은 시기는 단풍 고운 가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단풍든 계절이라는 말을 직접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채진두는 구담봉이 높이 솟은 웅장한 모습과 그 아래 강위에 떠가는 나룻배가 대비시키고 단풍이 조화를 이룬 구담봉의 아름다움을 절묘하게 묘사했다.

52)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선암계곡로 1337(대잠리 295)

53)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3827(장희리 14-2) 장희나루

제8경 옥순봉⁵⁴⁾이다.

王筍峰

庵若巨人拱立狀, 문득 거인이 받들고 서있는 것 같으며,
茁如玉筍獨巍然. 솟은 모습 옥순이 홀로 높이 솟은 것 같네.
晚岩石色千秋遠, 높은 바위 돌의 색깔이 천추나 오래되었으며,
肇關鴻濛幾萬年. 비로소 아득하게 열린 지 몇 만 년 되었나?

1~2구를 보자. 옥순봉의 웅장한 형상을 거인이 받들고 서 있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그 솟아 있는 봉우리의 모습이 옥순이 홀로 높이 솟은 것 같다. 옥은 포르스름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다. 옥순봉의 아름다움을 비유했다. 3~4구를 보자. 옥순봉의 색깔이 천추나 오래됐다. 천추는 오래됐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그 색깔을 보아도 옥순봉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다. 4구에서 의문문을 써서 옥순봉이 형성된 연도가 장구하는 점을 강조했다.

7. 맺음말

단양팔경은 관동팔경과 쌍벽적(雙璧的) 명승지로, 단양팔경이란 말은 단양의 산수의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상징어로 쓰웠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는 단양팔경을 정한 사람과 단양팔경 8개의 명칭과 그 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 사례가 없다. 또한 단양팔경 제1경부터 8경까지 8개 경에 전체에 대해 지은 시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 채진두(蔡鎭斗, 1894~1982)가 1964년에 지은 「단양팔경」 시를 찾아냈다. 채진두가 1964년도에 지은 「단양팔경」시는 지은 연도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채진두는 전통공부방식으로 한문학을 공부하여 한시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단양팔경 8개 경에 대해 지은 시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채진두의 「단양팔경」시는 단양팔경에 대해 지은 현존 최초의 시이자 유일한 시이다.

채진두의 스승 간재 전우(田愚, 1841~1922)는 「훈사간재전선생우(訓辭良齋田先生愚)」에서 인간 본성을 다 완성한 성인을 선택하여 스승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성인이 경험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실제로 응용하기를 요청했다. 또한 시작한 일에 대해 끝맺음을 잘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여 채진두는 평생 지은 시를 잘 갈무리하여 마무리한 것이라 여겨진다.

54)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3827(장회리 14-2) 장회나루

은암(隱菴) 박윤섭(朴允燮)의 「찬의재채진두서(贊毅齋蔡鎮斗序)」를 통해 채진두의 특출한 점을 알아보자. 첫째로 장수한 것이 특출난 것이다. 둘째, 아들들이 효도했다. 셋째, 채진두가 부유하게 살았다는 점을 꼽았다. 박윤섭은 채진두의 이런 특별하고 뛰어난 것은 말류(末流)에 해당된다고 했다. 넷째, 성인과 현인을 존송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 문묘, 서원, 향사(鄉祠)를 보수할 때 재산을 내었다. 그래서 춘추의 향사에 비와 눈을 피하여, 재(齎)를 성실히 하고 반드시 참여했다. 이런 채진두의 행자에 대해, 박윤섭은 “지금과 같이 예의가 땅을 쓸고 가는 시대에 진실로 문로의 바름이 아니면, 힘써 행하는 돈독함과 그 발휘하여 응용함이 이와 같겠는가.”라고 극찬했다.

또한 채진두는 자기가 사는 당시 청주지역과 청주인근에서 거행한 행사와 인물들에 대한 시와 글을 지었다. 따라서 당시 청주시 인정세태, 인물들의 활동상을 알 수 있어 일면 청주일대의 정황을 시로 쓴 시사(詩史)라고 할 수 있다.

채진두는 「자서(自序)」에서 송시열을 흠모 숭상하고 그의 문장법을 본받았다는 점을 밝혔다. 채진두는 덕을 많이 담은 영화(榮華)로운 글은 비록 일언(一言)이라도 그것이 후세에 전해져 즉 영금편옥(零金片玉)과 같이 보배롭게 전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글을 지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진두는 그 시대 정통 유학자답게 주자의 「무이도가」와 율곡의 「고산구곡가」, 우암으로 인해 화양동이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채진두의 「단양팔경」 중에 중선암을 읊은 시에 “개중기절(箇中奇絶)”은 「무이도가」에 들어있는 “개중기철처(箇中奇絶處)”를 따다 쓴 것이다. 이런 채진두의 학문과 문학적 소양이 화양구곡과 단양팔경에 관심을 갖고 시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는 팔경이 여러 개 있으며 그에 대해 지은 팔경시도 몇몇씩 있다. 그런데 단양군은 현재 단양팔경이외의 다른 팔경이 없다. 단양팔경은 현재 단양군내의 유일한 팔경이다.

『1923년 발간 충북산업지(忠北産業誌: 원저명 (『忠北産業誌』))』와 『1930년도 충청북도 단양군 군세일반: 원저명 (『郡勢一般』)』에 수록된 단양팔경에는 운선구곡(雲仙九曲)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팔경 안에 구곡을 포함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팔경은 8개 경의 명칭을 정하고 구곡은 9개 곡의 명칭을 정한다. 구곡 안에 이미 정해져 전해오는 팔경을 포함한 사례도 없으며, 팔경 안에 이미 정해진 전해오는 구곡을 포함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1923년 발간 충북산업지(忠北産業誌: 원저명 (『忠北産業誌』))』에 실린 당시 단양군수 곽한탁(郭漢倬)의 선친 난사(蘭史) 곽창현(郭昌鉉)이 지은 단양팔경시는 정통 팔경시로 보기엔 아쉬움이 있다. 1956년에 김상현이 저술한 『단양팔경』에 ‘운선구곡’을 빼고 사인암(舍人巖)을 넣었다. 채진두의 「단양팔경」은 김상현의 단양팔경과 순서는 다르지만 명칭

은 같다. 이로부터 채진두의 단양팔경이 정통 팔경시라 할 수 있다. 1977년 단양군에서 발간한 『단양군지』에도 김상현의 단양팔경을 따르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단양팔경은 김상현의 단양팔경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채진두는 『단양팔경』 시에 단양팔경 8개 경의 아름다운 특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다음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시적 문예미도 잘 살려냈다. 따라서 채진두의 「단양팔경」 시 내용과 표현미학상으로도 성공한 시라고 그 팔경시사적(八景詩史的)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李 俊, 『槐園集』, 국립중앙도서관.
蔡鎮斗, 『毅齋集』, 金剛印刷所, 1991.
金相顯, 『丹陽八景』, 忠淸北道丹陽郡丹陽面, 1956.
노승석, 『단양한시선』, 단양문화원, 2008.
李相周, 『충북의 구곡과 구곡시: 선인의 길을 따라 한시와 자연속으로』, 충청북도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忠北學研究所, 2007.
李相周, 『충북의 팔경과 팔경시』, 충북향토문화연구소, 2008.
이창식, 『단양팔경 가는 길』, 푸른사상사, 2002.
정삼철 편역, 『1930년도 충청북도 단양군 군세일반』, 충북발전연구원, 2015.
정삼철·최병철·조병화·최유림 편역, 『1923년 발간 충북산업지(忠北產業誌)』, 충북학연구소, 2019.
韓石洙 외, 『譯註 華陽誌』,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07.
단양군청, 『단양군지』, 1977.
안장리, 「韓國八景詩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6.
안장리, 「東國輿地勝覽」 '新增' 所載 八景詩의 특성, 『한국한문학연구』 20, 한국한문학회, 1997.
안장리,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 「俛仰亭三十詠」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5, 열상고전학회, 2007.
안장리, 「瀟湘八景 수용과 한국팔경시의 유행 양상」, 『한국문학과예술』 13-13, 숭실대학교 한국문예 연구소, 2014.
노재현, 「丹陽八景의 活人性과 景勝形象化 展開樣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7.
이국진, 「동아시아 소상팔경 문화: 조선 전기 瀟湘八景詩의 형상화 방식」, 『온지논총』 34, 온지학회, 2013.

- 李相周, 「西溪九曲」과 「西溪八詠」詩, 『教育科學研究』 제16집 제1호,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2.
- 李相周, 「報恩郡의 鳳凰臺와 李弘有의 鳳凰臺八詠」, 『忠北鄉土文化』 제13집, 忠北鄉土文化研究所, 2002.
- 이상주, 「仙遊八景과 仙遊九曲에 대한 고찰」, 『漢文學報』 제7집, 우리한문학회, 2002.
- 李相周, 「槐山 淸安八景과 淸安八景詩」, 『槐鄉文化』 제6집, 괴산향토사연구회, 1998.
- 李相周, 「槐園 李俊의 「丹陽十景次武夷權歌韻」에 대한 고찰」, 『고전과 해석』 제25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 최은주, 「朝鮮前期 八景詩의 창작 경향」, 『대동한문학』 15, 대동한문학회, 2001.